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운명의 1주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이 운명의 1주일을 맞고 있다.

외형상 큰 틀에서 이용섭과 반(反) 이용섭 진영 간 대결로 재편된 가운데 컷오프 생존자 명단이 이르면 이번주 안에 확정되고 주요 후보 단일화와 당원 명부 유출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사법처리 조율작업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4월 첫째주가 전체 경선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6·13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지난달 29, 30일 양일 간 광주시장을 포함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광역단체장 공천심사에서 가장 배점이 높은 ‘당선가능성’을 가능하기 위한 민심 파악작업의 일환이다.

공관위는 이어 2일 후보군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면접 대상은 모두 7명으로, 뜨거운 7과전이 예상된다. 공관위는 당선가능성(30), 면접(15), 정체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 능력(15), 도덕성(15)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여기에 본인이 취득한 점수에 여성(15%), 당 대표 1급 포상(10%) 등 가·감산 조항을 더해 종합평가를 예정이다.

컷오프 생존자수는 아직까지 유동적이다. 2~3명으로 압축한다는 게 기본방침이지만 광주는 후보자가 7명으로 가장 많아 한때 최대 4명까지 본 경선에 진출하는 것 아니

오늘 면접...이르면 이번주 내 컷오프 통과자 확정

후보 단일화·당원 명부 유출 1차 수사 결과 관건

냐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일부 후보 단일화가 현실화되면서 3명 생존자가 유력하다.

그러나 결선투표가 배제된다면 결선투표를 주장한 후보들의 집단 반발 등 뒤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샷 경선’에 2명만 남길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컷오프 생존자는 이르면 오는 4일 또는 6일경 확정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후 단 한 번 치러지는 원샷 본 경선은 권리당원 조사 50%와 여론조사 50%로 진행돼 다투어도 남북정 상회담(4월27일) 1주일 전에는 당 후보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경선 서바이벌이 본격화되면서 중요 변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수는 크게 3가지로 후보 단일화와 당원 명부 유출사건 수사 흐름, 중앙당의 정무적 판단 등이다.

일단 후보 단일화의 경우 강기정, 민형배, 최영호 후보가 지방공동정 부인과 혁신적 자치분권을 내세워 3차 단일화에 전격 합의한 데 이어 현역인 윤장현 시장이 추가참여를 놓고 물밑에서 검토하고 있다. 양한자 후보는 특정후보에 맞서기 위한 후보간 연대에는 원칙적으로 반대

하되, 당원 명부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이용섭 후보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세 후보는 시민사회단체 진영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3차 합의를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하며,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일 이전에 단일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4일이나 5일경 단일후보를 결정할 계획이다. 당초 시민 여론조사와 시민단체 배심원제 등이 검증에 나섰지만 이 역시 시간적으로 촉박한 점을 감안해 단일화 방식과 절차는 최소화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줄기차게 제기됐던 3차 연대론이 현실화된 것은 우선 당내 경선후보가 7명으로 너무 많고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검증위원회가 직접 후보 검증에 나선 점, 경선투표제에 대한 중앙당의 소극적 태도 등이 두루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 후보 측은 전날 광주 무극사에서 3시간동안 회동을 가진 데 이어 이날 오후 2시 광주충정로 우체국 앞에서 후보단일화 선포식을 갖고 3차 단일화의 배경과 취지 등을 시민들에게 일일 예정이다.

석 달째 진행돼온 광주시장 당원

명부 유출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흐름도 중요한 변수다. 핵심 인물들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 특히 공직선거법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어 이르면 이번주 안에 수사상 큰 흐름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앙당의 정무적 판단도 배제할 수 없다.

‘덧날 광주’에서 경선 선거인명 부나 다름 없는 당원 명부가 외부로 유출됐고 문제가 된 1월2일 문자 메시지 수신자 명단과 유출된 대외비 명단(원본)의 유사율(싱크로율)이 매우 높아 불공정 경선 논란이 커진 만큼 컷오프 과정에서 중앙당이 이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할 지, 온전히 경선물에 따른 판단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후보단일화 진영 한 관계자는 “3차 단일화로 1차 교동정리가 끝났고 추가 단일화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며 “현재로서는 당원 명부 유출에 대한 수사결과와 중앙당의 정무적 해석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논란의 중심에서 있는 이용섭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려온 만큼 배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 컷오프시 무소속 출마 여부, 컷오프 통과시 결선투표 예외적 도입 여부, 후보단일화 범위 등 경선관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이 아직 많기에 촉박해”라고 말했다.

뉴스스

동구, 구시청에 아시아음식전문점 오픈

광주 동구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관광명소로 구시청 일원에 조성중인 아시아음식문화지구에 아시아음식전문점 5개소를 오픈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김성한 동구청장 송종욱 광주은행장, 박종광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법식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주민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오픈식은 경과보고에 이어 대형 김밥발기 퍼포먼스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동구는 창업주들에게 임차료·인테리어 비용 등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창업자금 특별 대출을 도왔다.

서구, 책과 친해져요...복스타트 선포식

광주 서구가 지난달 31일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에서 “2018 복스타트 선포식”을 가졌다.

복스타트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영?유아의 바른 독서습관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책놀이 프로그램, 책 꾸러미 배부, 두더지 시리즈 김상근 작가와의 만남 등이 진행되었다.

서구에 거주하는 6개월부터 9세의 아이 및 부모 100여명이 참가하여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3개월~9세의 아이 50명에게 책꾸러미를 제공했다.

남구, 심폐소생술·심장충격기로 골든타임 아낀다

광주 남구는 지난달 30일 위급 상황시 골든타임을 활용해 인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교육을 나섰다.

남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전문 교육과 공동주택 및 일반단체 교육, 동주민센터 및 기관 순회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전남대 응급의학과와 함께하는 전문 교육은 각급 기관 시설 및 공동주택 자동제세동기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오는 6월 21일과 9월 6일, 11월 8일에 각각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자가 모집 인원은 각 교육당 50명 이내이며,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이 발급된다. 또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공동주택 및 일반단체 교육이 실시된다. 전남대 응급구조사들이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하며, 참가 인원은 2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남구와 남구소방서는 오는 9월 초까지 남구 관내 16개동주민센터 및 주월보건지소, 푸른도시사업소, 광주문화재단, 광주시립사직도도서관 등지에서 순회 방문교육을 실시한다.

북구, 북구청 광장 봄꽃정원으로 놀러오세요

광주 북구가 구청 광장을 아름다운 봄꽃정원으로 단장하고 주민들을 맞이한다.

북구는 오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북구청 광장에서 ‘2018 시민 휴식의 공간 봄꽃잔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봄꽃잔치는 바쁜 일상으로 먼 거리의 봄나들이나 봄꽃 구경이 부담스러운 주민들이 가까운 도심 속에서 여유롭게 꽃밭을 산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지난 1999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북구를 대표하는 축제이다.

이에 북구는 시민들이 따뜻한 봄 햇살과 함께 아름답게 핀 봄꽃들을 보면서 봄기운을 만끽할 수 있도록 전시기간 동안 청사 광장에서 마가렛, 가자니아 등 형형색색의 봄꽃 15만여본을 선보인다.

광산구, 청년예술인 무대 나누기 공모

광주 광산구가 광산문화예술회관 무대를 청년예술인과 무료로 나누는 ‘2018 광산무대나누기 프로젝트-화요문화산책’을 실시한다. 공연장을 구하기 어려운 청년예술인들의 창작열정을 후원하고 참신한 공연을 주민에게 선보이기 위해서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만 20~39세 청년예술인 5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연단체가 대상이다. 연극, 음악,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공연예술의 모든 장르가 가능하다. 지원할 공연단체는 공모로 선정한다.

지원 내용은 공연장 무료대관 및 부대시설 사용, 출연료 지급(단체별 1백만원), 홍보물 제작 등이다. 이들이 창작한 작품은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여는 ‘화요문화산책’에서 선보인다.

임형택 기자

전남도, ‘1100년 대흥사 느티나무’ 천년나무 지정식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월우 대흥사 주지, 최성진 해남군수 권한대행, 명현관·박성재·김성일 도의원, 김주환 해남군의회장 등은 지난달 31일 해남 두륜산에서 전라도 정도 천년기념 천년나무 지정행사를 가졌다.

전남도는 ‘전라도’라는 이름이 흥사 만일입타에서 도민이 선정한 역사 속에 등장한 지 천년이 되는 ‘천년나무 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 해를 기념해 지난달 31일 해남 대

살아있는 타임캡슐인 천년나무 지정 기념행사는 ‘고유제(告由祭)’와 ‘천년나무 현관 제막식’, ‘천년나무 소원빌기’, ‘천년나무 나누어주기’ 순으로 진행됐다.

고유제는 2018년 정도 천년에 전라남도도 천년나무를 선정할 사유를 알리고, 전남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다.

대흥사 주지인 월우(月佑)스님이 주관했다. 해남 대흥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시험 공부를 해 합격한 사찰로 인연이 깊다.

또 기념식 행사 참석자에게는 대흥사 문화재 관람료 등 입장료를 면제해주고, 천년나무와 같은 수종인 느티나무와 남부지방에 널리 자생하는 황칠나무도 무료로 나누었다.

김정환 기자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설명회 개최

광주시가 2일 오후 2시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지역민과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연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2단계 사업 대상지는 ▲송정공원 ▲일곡공원 ▲중의공원 ▲중앙공원 ▲신용(운암)공원 ▲운암산공원 등 모두 6개다.

시는 이들 공원과 관련해 최근 민간거버넌스 협의체와 공원 조성 방향 등의 논의를 마쳤다.

2단계 사업은 공원별로 공유지를 제외하고 그만큼 축소된 비공유 시설 구역과 공원 시설 집중 조성구역 등을 미리 설정해 제안을 받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서은홍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제기자 모집합니다”

해남·나주·목포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기 장 대 리
■ 양도상속증여 ■ 건설면허신청
■ 기업 진단 ■ 외 부 감 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융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리
▶ 지정·건설 폐기물 처 ▶ 석면 해체공사

측량 >> 토목설계 >> 도시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삼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노동법 기업컨설팅 ▶ 산재업무대리
▶ 급여체계 정비사 ▶ 징계(해고)자문
▶ 4대보험 무료대행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으뜸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실험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